

정치 > **통일** 

## 김연철 장관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로 南北 관계 모색"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코로나 방역협력도 필요"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2-18 14:27 송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북한 개별관광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의 모멘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북 협력사업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 간 관광 협력 모색 △남북 철도·도로 연결추진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국제평화지대화(DMZ)에 대한 실질적 사업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DMZ 실태조사와 'DMZ 평화의 길' 재개·확대를 실시하겠다"면서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대북협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엽 협력에 대해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우리측 발생 현황과 북한 동향, 민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재개될 것에 대비해 △판문점 시범견학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 대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중앙과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해 관련 동향을 연일 보도하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 내 감염 환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정일 생일 78주년, 지난 8일 건군절 72주년 행사도 축소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 △내각전원회 의 확대회의 △단체·부문별 궐기대회 등 내부결속과 경제성과 창출 독려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남측을 향해 △군사행위(한미군사훈련 등) △외세의존 △남 북공동선언 불이행 등을 지적하며 대남 비남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반면 공식적 인 대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단 '제재에 대응한 정면돌파전'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 코로나 19와 관련한 위로서한과 지원금을 전달 중국의 방역노력을 소개·지지하며 북중간 우애·친선관계 도모하고 있으며 이 외에 사회주의·전통 친선국가인 러시아와 쿠바, 이란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도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